

“臨床검사의 精度관리 철저해야”

— 檢査방법의 標準化로 신뢰도 높여

『정확한 臨床檢査는 人間の 질병치료 및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주나 어떤 다른 인자의 영향에 의하여 얻어진 검사치에 대한 해석이 틀려질 때는 피검사자(환자)에게 위험 또는 害를 줄 수도 있습니다』 大韓臨床檢査精度管理學會 金相仁회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많은 情報 중에서 가장 객관성이 높은 것이 임상병리검사 성적으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상검사 결과에 대한 精度管理를 철저히 함으로써 正確度(accuracy)와 精密度(precision)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金회장은 불과 십수년전만해도 精度관리라는 용어조차 생소해 하던 우리나라에 정도관리물질을 통한 전국 규모의 외부정도관리사업을 꾸준히 실시해온 결과 이제는 정도관리 없이는 수련 병원이나 의료전문기관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인식들을 갖게 되었으며 임상검사결과에 대한 정도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체의 내부정도관리만으로는 만족치 않고 보다 높은 신뢰도를 얻기 위해 외부정도관리에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다.

『임상병리학분야에 대한 정도관리문제는 70년대초부터 국내 각 대학병원의 검사실을 중심으로 거론돼 오다가 73년에 국내 18개 국립병원 임상병리과가 참여한 최초의 검사실간 정도관리검사가 실시됨으로써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74년엔 검사결과의 신빙도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는 등 임상검사의 정도관리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다



金相仁 회장

가 정도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76년 8월에 학회를 창립하게 됐지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임상검사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大韓臨床檢査精度管理學會는 목적사업으로 ▲각 의료기관의 임상검사결과의 정도관리사업을 비롯 ▲임상검사의 신빙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사업 ▲기술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국제정도관리기관 또는 학회간의 기초협력 및 정보교환과 기타 임상검사정도 관리와 관계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해마다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는 전국의 임상병리학 전문의와 병원검사실 대표들이 모여 1년간의 정도관리사업결과를 보고받고 그 결과를 분석·평가하는 한편 미국이나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고.

학회의 주요사업인 외부정도관리사업은 77년도에 39개 병원이 참가한 가운데 외부정도관리를 실시한데 이어 대상기관이 매년 증가하여 올해는 185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金회장은 이를 위해 임상화학·임상미생물학·혈액학·면역혈청학·임상검경학·혈액은행 등 6개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로 정도관리물질을 각 병원에 보내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이 결과를 컴퓨터를 통해 분석하여 제출된 결과가 평균치보다 너무 많이 벗어난 병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그 원인을 해결토록 유도하고 또한 제출된 결과가 평균치와 가까운 병원검사실의 경우는 자신의 검사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다.

『임상검사의 정도관리에 관한 관심들이 커지면서 검사실내 정밀도가 상당히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기관과 기관간의 측정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金회장은 이렇게 기관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각 기관측 측정치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검사실마다 측정에 관여하는 모든 요인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모든 분석조건을 통일한 방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역설한다.

『임상검사성적은 어느기관, 어느 누가 측정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요. 따라서 임상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검사방법의 표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金회장은 우리나라는 임상검사의 정확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표준물질에 대한 공급체계가 서 있지 않아 실험시약, 검사장비 등의 대부분을 검사기관 나름대로 외국에서 수입해다 쓰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와 한다.

金회장은 우리나라의 정도관리사업 자체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기계공업이나, 화학공업, 의료공업수준이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모든 분야의 공동발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임상병리검사 종류는 약 370여종에 달하고 있으나 과학의 발달로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은 무한합니다』 金회장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됨에 따라 검사종류도 늘어나고 있으며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연구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다.

『올해가 학회 창립 열돌을 맞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임상검사정도관리의 향상을 통한 진단학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더 능동적인 자세로 이 분야 발전에 전력해 나갈 작정입니다』 金회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조촐한 기념식과 함께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아울러 20종의 實質의 인 검사에 대한 검사지침을 수록한 표준화된 정도관리지침서를 발간, 각 병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특히 임상검사 전문의를 비롯, 전문기사와 간호원, 학생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도관리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주기 위해 강습회 및 표준화교육장을 상설화할 계획이라고.

이와 함께 임상검사분석 평가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data base化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학회산하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국내정도관리사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검사실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WHO 등에서 주관하는 국제정도 관리 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간 표준화에도 힘쓰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외국과의 교류도 확대, 최신정보 교류에도 힘쓸 작정이라고 밝힌다.

『우리 학회는 民間차원에서 정도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세계 유일의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金회장은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임상검사 정도관리의 발전이 바로 우리나라 의학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 정도관리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權光仁 記)